

추도사



故 趙義煥 博士 靈前에 哭함

故 趙義煥 博士(1936. 2. 16~2009. 8. 7)

前 韓國高分子學會長, 前 韓國科學技術院教授

이 무슨 청천벽력 같은 비보입니까. 먼 영국 스코틀랜드 글라스고시의 한 호텔로 새벽에 전달된 선배님의 타계 비보는 도무지 믿기 어려웠습니다. 차라리 부정하고 싶었었습니다. 어찌하여 선배님은 이처럼 우리 곁을 훌훌 떠나버리십니까. 우리들의 앞길을 다 뒤로 던져버리시고 이리 갑자기 떠나시면 우리들은 어떤 길을 가라는 말씀이십니까. 지난번 70이 되시던 모임에서도 수행하고 계신 연구내용을 것처럼 정력적으로 발표해 주시지 않으셨던가요. 학문에 대한 끝없는 열정을 선배님 특유의 달변과 해학으로 말씀해 주시던 그 모습이 지금도 우리들 마음속에 생생합니다. 너무나 애통하고, 가슴이 막혀 선배님의 영면을 받아들이기 싫습니다. 어처구니 없이도 빨리 시간을 떠나셨습니다.

이제 우리들과는 이세를 달리하고 계시지만, 선배님의 크나큰 족적은 사방에 놓여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국방과학기술연구소, 미국 브루클린 공과대학, 미시간 대학교, 미국의 Uniroyal 연구센터, 한국과학기술원 등에 교육과 연구의 커다란 발자국을 남기셨으며, 대한화학회, 한국고분자학회 및 한국과학기술한림원에서 중책을 맡으시어 후학들의 활동무대를 튼튼히 닦아 주셨습니다. 크나큰 선배님의 족적을 우리들의 조그만 발로는 도저히 채울 수 없기에 더욱 안타깝고 비통합니다.

무어니 무어니 하여도 선배님의 학문적 발자취는 우리 아무도 좇을 수가 없습니다.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선배님의 학문적 깊이는 우리들에게 미래를 볼 수 있게 해주셨으며, 창발적 아이디어의 중요성을 가르치셨습니다. 후배들과 제자들을 항상 인자한 모습으로 이끌어 주시던 온후한 선배님의 웃음 띤 모습을 이제 우리는 기억 속에서나 찾아보아야 하는 아쉬움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고분자학계를 일구시고 가꾸어 주시던 선배님. 그 많은 친지, 동료, 후배, 제자들은 선배님의 훌륭한 선비정신과, 인자하신 품격, 빛나는 업적을 영원히 잊지 않으렵니다. 또 항상 선배님의 곁을 지켜 드리렵니다. 선배님을 잃은 우리는 억지로 눈물을 거두렵니다. 선배님, 부디 열반의 평화와 영생을 함께 하시옵소서.

合掌 陳 政 一 (고려대학교 석좌교수, IUPAC 회장)

고 조의환 교수 약력

출생지: 충청남도 논산군 채운면 심암리(1936년 2월 16일생)

- 1958 서울공대 화학공학과 졸업
- 1958~1961 국방부 과학기술연구소(병역복무)
- 1967 미국 Polytechnic Institute of Brooklyn 대학원 졸업
Ph. D. (Polymer Chemistry, 지도교수 C. G. Overberger)
- 1966~1968 Univ. of Michigan, Macromolecular Research Center 연구원
- 1968~1972 Uniroyal Research Center 연구원
- 1972~1977 한국과학원(KAIS) 화학과 부교수
- 1977~2001 한국과학기술원(KAIST) 화학과 교수 [이후 명예교수]
- 1977~1978 한국고분자학회 초대 편집위원장 ['폴리머' 발간]
- 1986 대한화학회 간사장
- 1988 대한화학회 고분자화학분과회 회장
- 1989 한국고분자학회 부회장
- 1989 IUPAC Polymer Symposium(Seoul) 학술위원장
- 1991 한국고분자학회 회장
- 1993~1995 한국고분자학회 'Korea Polymer Journal' 초대 편집위원장
- 1995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중신회원

훈장: 국민훈장 목련장(1983), 과학기술훈장 창조장(2006)

수상: 한국고분자학회 제1회 상암고분자상(1996)

한국고분자학회 공로상(2004)

대한민국 학술원상(2000)